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 의안번호 : 제1433호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1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2. 제 안 사 유

-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외곽을 둘러싼 산과 하천, 그리고 마을 길을 연결하여 조성한 총 21개 코스·156.5km의 산책길로서,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둘레길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서울둘레길」을 서울권역의 시민 모두가 걷고 싶은 숲길로 발전시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
- 이에 서울둘레길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하고, 효율적 숲길관리를 위해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숲길 관련 전문기관에 서울둘레길의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함.

3. 주요 내용

가. 설치·운영 개요

- 시설명 : 서울둘레길
- 규모 : 총 21개 코스, 156.5km
- 공간구성 : 숲길, 종합안내판·이정표, 스템프, 휴게시설 등
- 준공일자 : 2014. 11. 15.
〈서울둘레길 2.0 개장 : 2024. 4월말(예상)〉
- 운영인력 : 세부 운영조직은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시 협의 구성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4. 3. 1.(예정) ~ 2026. 12. 31.
- 위탁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대상 : 숲길(트레킹길) 관리 및 걷기프로그램 개발·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소요예산 : 700백만원 ('24년 기준)
- 위탁업무
 - ① 서울둘레길(21코스, 156.5km) 시설 관리·운영 일체
 - 서울둘레길 시설 관리·운영 일체
 - 지역단체·자원봉사자와 연계, 서울둘레길 운영 네트워크 구성
 - 서울둘레길 관광 명소화를 위한 홍보
 - ② 서울둘레길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프로그램 개발·운영
 - 100인 원정대 : 100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서울둘레길 완주
 - 자원봉사 아카데미 및 시민참여봉사단 운영

- 서울둘레길 코스가이드
- 서울둘레길 테마별(달맞이 트레킹 야간산행) 탐방 운영
- 서울둘레길 가을 걷기 축제 등

③ 서울둘레길 관광명소화를 위한 홍보

- 서울둘레길 탐방객을 위한 안내지도, 스탬프북, 책자 제작·배포
- 언론사와 홍보 협력,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정보제공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숲길의 운영·관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둘레길 조성에 따른 관리·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59호)

○ 필요성

- 「서울둘레길」의 숲길 특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숲해설프로그램, 산림치유프로그램, 역사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걷기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숲길의 코스별·계절별 특성에 맞춰 탐방객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숲길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함.
- 또한, 서울둘레길 운영 및 관련분야의 업무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서울시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둘레길의 운영사무를 숲길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숲길의 운영·관리)

숲길관리청(서울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둘레길 운영사무를 신규로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6년 경과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되는 사항임.

나. 검토 의견

1)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서울둘레길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서울둘레길 조성에 따른 관리·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59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근거하고 있음.
- 서울둘레길 운영사무는 둘레길 내 걷기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시설물 유지관리를 주로 하며, 세부적으로 ①서울둘레길 21코스(156.5km) 시설 관리·운영과 둘레길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단체 및 자원봉사자 연계 업무, ②서울둘레길을 활용한 100인 원정대 등 다양한 걷기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테마걷기 개발, ③서울둘레길 관광명소화를 위한 홍보, 스탬프북, 책자 제작·배포 등으로 구성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서울둘레길 운영사무는 제2호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준에는 부합하고 있음.

2)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을 정하고 있고, 동 조례 시행규칙에는 [별지 서식]을 통해 제출 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수탁자 선정방식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안 및 별도 제출 자료 확인 결과 누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기 보다는 동의안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

3)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서울둘레길 운영·관리 사업은 2023년 8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적정으로 평가¹⁾되었으며, 7월에는 종합성과평가²⁾를 실시하여 5개 항목³⁾에 대한 평가를 통해 총점 81.49점을 획득하였음.
- 민간위탁 재위탁 공모 절차는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예산편성 및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협약서 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현재는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 진행 중이나 예산안 편성 및 제출 심의 이전 회기에 제출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했을 것임.

<2023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비고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시설형 재위탁	3년	적정	

1) 서울시 조직담당관(2023.8.29.)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2) 주관(공원여가사업과), 평가수행(한국산업관계연구원)

3) 종합성과평가 평가항목: 사업인프라, 사업활동,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만족도 제고노력

4) 민간위탁 성과보고서⁴⁾ 검토

- **종합점수:** 현재 위탁사무를 맡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종합평가 결과 81.49점을 획득하였고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재계약 기준점수인 75점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해 시행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전체 평균 74.02점⁵⁾보다도 높아 향후 재위탁 시 좋은 점은 확장시키고 미비점⁶⁾의 원인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사업 지표:** 2015년 개통한 이래 9년차를 맞은 서울둘레길은 시민의 건강, 복지, 관광 활성화 등에 맞추어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동안 물리적인 보행로, 산책길 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시행한 것이 지적된바, 향후에는 문화 콘텐츠 개발, 외국인 및 관광객 유치, 테마산책, 산림휴양 등의 생태관광문화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예산의 최종 집행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분기별 예산 집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조직 및 인력, 사회적 가치:** 관리인력의 전문성은 인정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한계로 인해 교육성과의 지속성이 부족한 것이 지적되었으며, 지역 전문가들과의 교류 연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림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서울둘레길 관리운영-(’23.7., 서울특별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5) 민간위탁성과평가 평균점수: 총 47개(74.02점), 1차(67.34점), 2차(75.67점), 3차(79.05점)

6) 신규채용 시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던 점이 지적되고, 장애인들의 둘레길 접근성 개선을 주문받았음.

5) 종합 의견

- 서울시는 2023년 ‘서울둘레길2.0’⁷⁾ 기본방향을 설정하면서 코스를 세분화하고 주요 거점에 휴양여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관광·자연·역사·문화의 중심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여가공간을 제공한다는 목표임.

이를 위해서는 둘레길 운영에 대한 노하우 및 전문성을 갖추고 둘레길 현장의 코스를 안전(시설점검, 노선점검)·여가(탐방객 홍보, 휴식)·프로그램(행사, 지역 거너넨스운영, 관광명소화)의 다양한 관점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100인 원정대’, ‘코스가이드’ 프로그램은 시민참여율이 높아 환경도시 서울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바 이와 같은 모델을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민간위탁 사업은 서울시와 시민의 중심에서 사업의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므로 안정된 조직을 바탕으로 공원·산림·생태분야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서울시를 환경도시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현재 민간위탁 조직은 정규직 2명, 비정규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규직 2명은 본사에 소속되어 파견행태로 나와 근무하고 비정규직은 민간위탁 인건비 범위에서 파견된 관리자에게 별도로 고용되어 조직이 불안정하고 다중화되어있는 측면이 있는바, 위탁기관의 직원 고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서울둘레길 민간위탁은 지난 2015년 처음 위탁을 시행할 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수탁받아 올해까지 3차⁸⁾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면서

7) 서울둘레길 2.0 추진 종합계획(자연생태과-16192, 2023.8.30.)

다년간의 숲길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이를 근거로 위탁 기간을 연장해왔으나, 재위탁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업무적 공백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현재 민간위탁 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재위탁이 필연적이었음에도 공원여가사업과는 동의안을 늦게 제출하여 약 3개월간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게 되었음.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 점은 부서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행정부실로 판단됨.